

‘전국 최강’ 광주 여자배구 부활한다

광주체고 여자배구부 창단... 체중 3학년들 위탁교육으로 팀 꾸려

노정현 감독 지도

광주체육고가 최근 여자배구부 창단을 결정함에 따라 한 때 전국을 호령하던 광주의 여고배구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여고배구부 창단으로 광주출신의 선수들이 2015년 광주U대회의 주역으로 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정현 감독

광주체육고와 광주시배구협회는 이달 초 광주시교육청에 '2012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여자 배구부 창단준비에 돌입했다. 17일 밝혔다. 빠르면 올여름 안에 모든 창단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달 말 제40회 소년체전이 끝나는 대로 광주체중 여자배구부 3학년 7명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광주체고에 위탁교육하는 방법으로 팀을 창단한다.

전용배구장이 없어 용봉초 체육관을 빌려 사용했던 광주체육중고는 이번 기회에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체고 김광수 교장은 "올해 초 광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50억 규모의 체육관 건립 계획이 통과해 이미 9억 원을 확보했다"며 "연내에 4층, 2개 코트 규모의 체육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체육중학교 여자배구 선수들이 17일 광주 용봉초 체육관에서 소년체전 우승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30여년 동안 광주여자배구는 송원여중, 송원여상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으로 전국최강으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이 지역 유일의 사학 배구팀인 송원여중과 송원여상 배구부가 선수 수급 부족 등으로 해체되면서 그 명맥이 끊어졌다.

결국, 송원여상 배구부 선수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광주체육중이 지난해 4월 여자배구부를 창단하면서 당시 송원여중 배구부 2학년 7명과 1학년 3명 등 모두 10명을 흡수해 운영해왔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으로 1970년대

후반 광주여상을 지휘하며 150연승을 이끈 노정현 감독이 지역 배구발전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며 올여름 초 단양 전국 춘계연맹 대회 준우승, 해남 종합선수권대회 3위 등의 성적을 거두면서 기량을 쌓았다.

하지만, 광주에 여고 배구부가 없어 내년 초 졸업을 앞둔 광주체중 배구부 7명의 학생이 또다시 전국으로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선수들이 동요했다. 3학년 김예지(17·센터·183cm)·강혜수(17·센터·178cm)·김혜민(16·라이트·173cm)·김보미(16·레프트·182cm) 등 치령초 시절부터

수년째 손발을 맞춰 전국 3관왕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던 우수한 선수들이 타지에서 선수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광주시배구협회 이재재 전무이사는 "여고배구팀을 창단하지 않으면 실력있는 광주 선수들을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체중 여자배구는 오는 28일부터 4월 동안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패 최경주 '금의환향'

“이번 우승 내 인생 터닝포인트”

“PGA 10승은 쉽게 할 것”

내일 SK텔레콤오픈 출전

“(우승을 못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5의 메이저골프대회로 불리는 미국 프로골프투어(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19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11(총상금 9억원)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최경주는 자신을 성원해준 팬들과 스폰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승 순간 울먹었는데.

▲3년 전의 우승을 마지막으로 부진이 계속 됐을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나 자신과 팬들에게도 재기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우승한 순간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 '태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때 재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태풍이 너무 늦게 왔다. (웃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의 의미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4대 메이저가 아니라 제5의 메이저로 불리지만 사실 PGA 투어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저대회 우승 못지않게 자부심을 느낀다. 대회가 열린 소그래스 TPC에는 이제 태극기가 내년까지 걸려 있을 것이다.

-4대 메이저 대회 우승 가능성은.

▲지난달 마스터스 대회를 끝낸 뒤 벌써 내년 마스터스를 준비하고 있다. 골프라는 것이 그때마다 컨디션에 크게 좌우되는 스포츠라



특정 메이저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그저 매 대회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제 나이가 40세를 넘었는데 체력적인 문제는 없나.

▲몸 상태는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록을 봐도 그때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세계랭킹 2위인 루크 도넬드와 취리히를 레이스에서 동반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단신인데도 자신만의 플레이를 했다. 나도 비거리 목표를 버리고 나만의 색깔을 내려고 한다.

-올해의 목표는.

▲이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프레지던트컵 출전권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본다. 그리고 세계랭킹이 15위까지 올라갔으니 올해 목표는 다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PGA 투어에서 몇 승을 더 추가할 수 있겠는가.

▲이번 우승으로 8승을 올렸으니 9승, 10승은 쉽게 오리라 본다. 이번 우승이 터닝포인트였다. 내 생애 최고 랭킹이 5위였으니 다시 역대 최고 랭킹에 근접해 올라가 보고 싶다. /연철뉴스

이용규·김주형·나지완 “KIA 타선 우리에게 맡겨”

1985 동갑내기들 '대폭발' 예고

85 동갑내기들의 알짜배기 타선이 KIA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톱타자 이용규와 한방을 보유한 김주형·나지완이 1985년 친구사이다. 김주형과 나지완은 친구이자 '우타거포' 경쟁자이기도 하다.

17일 LG와의 경기를 앞두고 KIA 덕아웃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단연 김주형이었다. 부상병 최희섭을 대신해 1루를 지키고 있는 김주형은 사직에서의 주말 3연전 때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만년 유망주' 타이틀을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나지완의 고공행진 속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 팬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김주형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나지완은 친구이자 경쟁자의 활약

를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지난 주말 김스를 풀고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간 나지완은 17일 덕아웃에 들려 훈련을 지켜봤다.

나지완은 “그동안 주형이가 제 기량을 못 보여줘서 안타까웠는데 롯데와의 첫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내서 기분이 좋았다. 축하의 메시지도 보냈는데 세 번째 홈런이 나올 때는 솔직히 배가 아프기도 했다”고 웃었다.

또 “빨리 그라운드에 올라 경기를 하고 싶다. 재활을 잘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용규도 김주형과 서로를 '주팔', '용팔'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정도로 '절친'이다.

이용규는 “주팔 원정에서 주형이가 톱메이트를 했다. 원래 내가 안타를 세 개씩 쳐야하는 건데 내 기를 뺀 홈런을 친 거다”는 농담을 하며 친



이용규

김주형

나지완

구의 활약을 바꿨다.

확 달라진 김주형의 비결은 '마음'이다. 김주형은 “기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힘을 빼고 타석에 들어서서 게 전과 조금 다르다. 타이밍

은 잘 맞았었는데 그동안 잘 쳐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한번 주춤했다가 스윙이 나가면서 빗맞는 타구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wool@kwangju.co.kr

KBO, 이용일 총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수장 자리가 빈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당분간 총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프로야구 사장단은 17일 오전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용일(80) KBO 초대 사무총장을

총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또 사장단 간사인 신영철 SK 와이번스 대표이사를 이사회 임시의장으로 뽑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용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후임 인선



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철뉴스

문제를 논의했지만 신인 총재를 곧바로 뽑지는 않았다. 대신 직무대행을 선출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후임 인선 작업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철뉴스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